

2020년 희곡우체통 1, 2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X의 비극>과 <세 개의 버튼>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 무사하신지요. 지구촌의 안전이 걱정되는 시절입니다. 2020년 희곡 우체통 사업의 출발도 코로나로 인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제 기지개를 켜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투고된 대본들이 계속 쌓여가는 중이어서 더 이상 지원 작가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출발로 인해 올해의 첫 심사에서는 두 편의 희곡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포문을 열 <X의 비극>은 탈진한 X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해 모두가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X세대 주인공을 대비시킨 작품입니다. 작가의 시선은 냉소적이지만 가식이나 포장을 걷어낸 촌철살인의 대사가 묵은 체증을 뚫어주듯 속 시원하고 위트가 넘치는 작품입니다. X세대로 불렸던 1990년대 청년들의 어른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낭독회 초청작은 인공지능 AI를 소재로 삼은 <세 개의 버튼>입니다. 사건의 전개가 장황하고 대사가 자연스럽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조금 망설였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꾸준히 들어왔던 같은 소재의 작품들과 비교할 때, 단순히 소재주의를 떠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또 인간 중심의 사고는 올바른 것인지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작가의 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파고를 비롯해서 인공지능과의 공존은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될 것 같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라 그 미래의 삶이 어떨지는 상상하기 힘들죠. 연극이 그 상상의 역할을 맡아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장벽이 없어진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듯, 문명의 급격한 발전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간을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소소한 싸움과 고투하면서 살아야 하겠지요. 국립극단 희곡우체통의 2020년 낭독회 역시 그렇게 우리의 현재읽기와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관객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기성작가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 열린 제도로,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